

## 베라크루스에서 오아하카까지 — 멕시코 여행(3)

김수정

### 대서양으로 향하기 전 할라파에서

1월 7일 수요일: 할라파 시내 답사—베라크루스로 이동—베라크루스 지역 박물관—소칼로—워터프론트

할라파(Jalapa 또는 Xalapa)는 멕시코의 동부, 대서양에 맞닿은 베라크루스 주의 주도다. 멕시코시티에서 베라크루스까지 한걸음에 달리기엔 너무도 먼 거리. 우리는 잠시 할라파에 들러 하루 정도 휴식의 시간을 가졌다. 해발 약 1,400미터에 위치한 도시라 기후가 선선한 편이었지만,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그 동안 느끼지 못했던 습기를 잔뜩 느낄 수 있었다. 점점 바닷가 근처로 왔다는 것이 실감나기 시작했다.

할라파는 작가, 예술가, 대학생, 음악가의 집단지로 묘사된다. 이러한 다채로운 문화적 매력 때문에 ‘베라크루스의 아테네’라고 불리기도 한다. 대학도시답게 젊음의 에너지가 있으며, 분주한 현대 도시다. 우리가 다닌 여러 지역 가운데 교복 입은 학생들을 가장 많이 본 곳이기도 하다. 이 지역에 유달리 중·고등학교가 많은지 소칼로에서만 여러 종류의 교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와 달리 교복을 입고 다니는 초등학생도 눈에 띄었다.

할라파도 멕시코의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식민 시대 스페인식 도시 구조를 따라 도시가 형성되어, 대성당이 있는 소칼로를 중심으로 관공서

와 가게가 들어서 있다. 그런데 이 도시 자체가 경사가 심하여 다른 도시 처럼 대성당과 관공서가 광장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공서가 옆으로 살짝 밀려나 있다. 할라파 대성당은 1773년 바로크 양식과 신고전주의 양식을 혼합해 만들었다. 시계탑도 있다. 시계는 영국에서 들여온 것이다. 광장에 도착했을 때, 대성당 앞에서 택시기사 노조에서 단체교섭행위를 하고 있었다. 택시요금을 인상해 달라고 지방 정부를 상대로 할라파 지역뿐만 아니라 베라크루스 주 단위차원에서 요구하는 시위였다. 다른 지역에 비해 이 지역 택시비가 반값 정도 싼 걸 생각하면 그럴 만도 하겠지. 그런데 시위 현장이 우리나라 시청 앞에서 벌어지는 것과는 달리 굉장히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교통에 불편을 전혀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단지 피켓을 들고 연설할 뿐이었다. 우리가 지나가자 영어로 인사를 던지고 안부를 묻기도 하고 같이 사진을 찍자며 반겼다.

소칼로 주변 답사를 마치고 다이아몬드 골목(Callejón diamante)을 찾았다. 다이아몬드 골목은 보헤미안 분위기의 카페와 예술인 마을로 밤에 가장 붐비는 도로 가운데 하나다. 조약돌 같은 돌이 바닥에 깔려 있었다. 좁은 골목 양쪽으로 아담하고 조용한 카페와 레스토랑, 핸드폰 고리, 가방 등의 공예품을 파는 가게가 줄지어 있었다. 반나절 정도 할라파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즐긴 후 서둘러 베라크루스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 멕시코 제일의 항구 도시 베라크루스

멕시코 중동부 카리브 해의 최대 항구도시 베라크루스는 1519년 코르테스가 멕시코 정복의 첫발을 이곳에 내딛은 다음부터 줄곧 멕시코의 대표 항구로 번창해 왔다. 베라크루스는 코르테스가 멕시코에 상륙한 이후 외부세계로 나가는 관문이 됐다. 침략자와 통치자, 해적과 이주민 그리고

멕시코의 보물과 서구의 물건이 들락날락하며 멕시코 역사에서 중요한 축으로 작용하는 도시가 된 것이다. 이곳은 스페인 조상의 끈끈한 유대를 지니고 있는 문화유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시립박물관은 베라크루스의 문화원이다. 1852년 지어진 이 박물관은 1970년부터 베라크루스 시에서 문화와 역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스페인 정복자들이 도착하기 전 이 지역은 톨테카와 아스테카의 영향을 받은 토토나카(Totonaca) 족이 차지하고 있었다. 토토나카 족의 후예는 오늘날 26만을 헤아린다. 대부분 베라크루스 해안의 테콜루틀라(Tecolutla)와 푸에블라 북부의 산악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 산악지역에 살고 있는 토토나카 족에게는 아직도 전통적인 관습이 강하게 남아 있다. 가톨릭이 전래 신앙에 이식된 형태의 종교관을 지니고 있는데, 주요 신은 조상들과 태양(이는 또한 옥수수의 신이다), 그리고 성 요한(물과 번개의 신)이다. 금성과 달은 코티티(Qotiti)와 동일시된다. 지하 명부의 세계를 다스리는 사탄을 말한다. 오늘날에도 몇몇 토토나카 족 사람들은 세계는 납작하고 하늘은 둥글며 밤이 되면 태양이 지구 밑으로 여행한다고 믿고 있다고.

### 대서양을 바라보며

베라크루스 해안은 냄새나고 더럽다. 백사장 대신 검은 흙에 가까운 진흙 톱에다가 바닷물도 탁해 해수욕할 마음이 절로 사라진다. 해변이라기보다는 항구도시라고 해야겠다. 하지만 매일 저녁 밤새도록 흥청거리는 소칼로 거리의 각종 쇼와 카니발 축제가 있어서 주말이나 휴일이면 도시의 사람들이 몰려 들어온다고 한다. 베라크루스를 답사하면서 우리나라의 인천 월미도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바닷가라서 습하고 바람이 많이 불었다. 각가지 큰 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산책하는 사람들도 많



베라크루스 항

왔다. 유람선을 타고 해안가 근처를 50분 정도 돌았다. 아르마스 광장의 북쪽에는 항구도시답게 커다란 공장들이 늘어서 있다. 그리고 페멕스(Pemex) 본사가 크게 자리 잡고 있다. 이 항구를 통해 원유가 수입·수출되기 때문에 이곳에 본사가 들어서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본토와 독길로 연결된 섬 산 후안 데 울루아(San Juan de Ulua) 요새가 눈에 들어온다. 1518년 스페인 정복자 후안 데 그리할바(Juan de Grijalva)가 쿠바에서 출발하여 신대륙을 탐험 중 이곳에 도착했다. 그 뒤로 스페인 정복자들은 멕시코로 들어오기 위해 이 관문을 통과했다. 첫 요새는 1530년 무렵 세워졌지만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부분의 구조물은 1552년에서 1779년 사이 완성된 것들이라 한다. 이 요새는 포르피리오 디아스(Porfirio Díaz, 1830~1915) 치하에서 정치범을 수용한 감옥으로 악명이 높았다. 요새 가운데 부분에 연옥, 영광, 지옥이라고 불리는 축축하고 악취가 나는 독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결핵과 황색열병 등을 앓다가 죽음을 맞았다.

한때 베라크루스의 방어벽을 잇고 있던 아홉 개 성채 가운데 1526년 세워진 산티아고 성채만이 유일하게 남아 있다. 내부에는 ‘어부의 보석’이라는 이름으로 정복 이전의 황금 보석류가 전시되고 있다. 1976년 한 어부가 베라크루스 항에서 발견한 것들이라고 한다. 이 튼튼한 석조 건물은 식민 시대에 금을 출하하던 항구 베라크루스를 해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해 왔다. 요새의 반은 감옥으로 사용됐다. 베라크루스에 요새로 사용할 건축 재료가 마땅치 않았다. 그 대안으로서 심해의 산호를 적절하게 가공하여 요새의 성벽을 만들었다고 한다. 폐허가 된 요새가 항구의 풍경과 더불어 영화 속 한 장면같이 두 눈에 빨려든다.

‘베라크루스 시골뜨기’라는 뜻의 하로초(Jarocho)라고 불리는 이곳 사람들은 재미있고 느긋하다. 또한 베라크루스는 커피로 이름난 곳이기도 하다. 멕시코시티에 하로초를 간판으로 내건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커피숍이 있을 정도니까.

빠듯한 일정에 쫓겨 할라파부터 베라크루스까지 하루 동안 답사를 하느라 모두가 지쳐 있었다. 하지만 우리 앞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건 오아하카로 가기 위한 야간 버스. 베라크루스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오아하카(Oaxaca)로 향하는 1등급 야간 버스가 모두 매진된 상태였다. 하는 수 없이 2등급 버스를 타고 밤새 오아하카로 달려야 했다. 버스에 앉아 잠을 청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지만 매번 색다른 모습을 보여 주는 멕시코 도시들의 매력을 생각하니 오아하카에 대한 기대가 불쑥 솟아올랐다.

## 조용하고 차분한 도시 오아하카

1월 8일 목요일: 오아하카 도착—산토도밍고 성당—오아하카박물관—소칼로—대성당—후아레스 박물관

오아하카는 해발 1,550미터의 고원도시다. 인디오 비율이 절반 이상



광활한 오아하카

을 차지할 만큼 원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다. 교외에는 몬테알반과 미틀라라는 두 곳의 중요한 유적이 자리 잡고 있다. 시내에서 한 걸음만 나가면 뿌리 깊은 옛 원주민 문화를 이어온 인디오의 생활을 직접 엿볼 수 있다. 오아하카는 원주민 문화의 색채가 짙은 만큼 민예품의 보고이기도 하다. 특히 오아하카의 민예품은 색채가 풍부하여 보는 이의 마음을 기쁘게 해 준다. 여성용 솔 레보소, 깔개로 사용하는 타페테, 인디오의 세계관을 표현한 것 같은 자수가 놓인 민속의상 우이필 등 참으로 다양하다.

할라파와 베라크루스에 견주어 좀 건조했지만, 오아하카의 날씨는 우리 한국인에겐 매우 좋았다. 그래서 바쁜 여행 가운데 낮 12시까지 호텔에서 따뜻한 햇볕 아래 휴식을 취하며 한껏 여유를 부렸다. 소칼로로 나와 산토도밍고 성당으로 들어갔다. 여기는 여태까지의 다른 대성당과는 달리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하기에 어리둥절했다. 들어가 보고서야 까닭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규모 면에서도 매우 크고 웅장했으며 안에 박물관도 있었다. 1575년부터 한 세기에 걸쳐 완공된 이 성당은 멕시코

바로크 양식의 대표작이다. 입구에 들어서면 천정에 산토도밍고를 중심으로 하여 성인·성자의 상관도라 할 수 있는 ‘생명의 나무’가 금박과 목조의 부조로 묘사돼 있다. 평면적인 천정화에 익숙해져 있던 우리 눈에 신선한 자극이었다. 이 성당도 제단이 전부 황금으로 도배돼 있으며 호화찬란하기 이를 데 없다. 우리가 멕시코에서 둘러본 그 어떤 성당보다 더 많이 금으로 화려하게 장식해 놓은 성당이었다.

성당을 나와 옆으로 다시 들어가니 오아하카의 역사를 알 수 있는 박물관이 있었다. 굉장히 오래된 책자들이 보관돼 있었다. 다 닳아 없어지고 일부만 남은 사포테카(Zapoteca) 상형문자도 전시돼 있었다. 스페인이 침략해 오면서 스페인 세력에 의해 파괴된 것들이다. 지금으로선 전혀 해석이 불가능하다. 언어가 국가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다시 생각해 보았다. 멕시코가 외부세력으로부터 침입을 받고 그 과정에서 혁명을 일으키는 과정들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치하에 있을 때와 비슷한 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일본인들도 황국신민화 정책을 펼치며 우리의 글과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 궁극적으로는 정신마저도 일본화시키려 했기에...

성당 한편에 해골들이 축제하는 듯한 벽화그림을 여러 장 보았다. 오아하카의 죽은 자들의 축제는 스페인으로부터 그 영향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본래는 스페인 정복 이전의 것이었다. 멕시코에서는 삶과 죽음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관해 부족, 출신 등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됐기 때문에 스페인이 종교적으로 이 땅을 정복하기란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죽은 자들의 축제는 나흘 동안 계속 이어진다. 축제 기간 동안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 살아 있음에 축하하며 그 기간을 그들 스스로의 존재에 감사드리는 시간으로 삼는다. 또한 이 축제 때 사람들은 코스튬 의상을 입고 공동묘지에 모여 음악에 맞춰 춤추고 노래한다. 그러고 보니 소칼로 근처 어느 바에서 어두컴컴한 분위기에 해골이 전시돼 있는 걸 보기도 했다. 마침 답사 때가 축제기간은 아니었지만, 축제기간엔 전 지역

에서 떠들썩하게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겠지?

오아하카의 소칼로를 돌아다니다 보니 가난한 동네인 것에 비해 의외로 크고 거리도 깨끗했다. 소칼로 근처 건물들도 연노랑, 하늘색의 파스텔 톤 색깔로 깔끔했다. 거리 분위기는 고요하고 아늑했다. 도로 공사 인부들의 표정도 그렇게 밝고 순진한 미소를 띠 수가 없었다. 전체적으로 마을이 굉장히 조용하고 차분했다. 어디를 가든 곳곳에 들어서 있던 맥도날드도 이곳에선 보이질 않았다. 버거킹 간판도 여태까지 봤던 것 가운데 가장 간소했다.

좀 더 골목을 지나 베니토 후아레스 박물관에 들어섰다. 베니토 후아레스(Benito Juárez, 1806~1872)는 멕시코 역사상 단 한 사람의 인디오 출신 대통령이다. 옛날 멕시코 50페소 지폐에도 등장해 익히 알려진 인물. 순수한 사포테카 인디오의 피가 흐른 그는 오아하카의 유복한 가정에서 공부하고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정계에 투신했다. 후아레스는 자유주의파의 리더로서 1858년 대통령에 취임했으며 교회재산 몰수, 자작농 육성 등을 비롯한 획기적인 '개혁'을 실시했다. 박물관이 되어 있는 후아레스의 집은 19세기 멕시코 중산층의 삶을 그대로 전해 준다.

#### 사포테카 인의 도시 몬테알반(Monte Albán)

다음날 우리는 오아하카 호텔에서 투어 밴 차량으로 한 시간 정도 이동하여 몬테알반 유적지에 갔다. 몬테알반은 오아하카가 내려다보이는 고대 사포테카 인의 도시다. 기원전부터 서기 1000년 넘어서까지 오랜 세월 지속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몬테알반에 도착한 순간, 마치 세계의 정상에 선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바깥에는 큼직한 산들이 외적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둘러싸여 있고 그 안으로 편평하고 낮은 대지가 넓게 펼쳐져 있는 가운데 몬테알반은 큰 언덕 위에 세워져 있다. 몬테알반에서 내

려다보니 낮은 대지에 마을들이 작게 무리를 이루며 조금씩 흩어져 있고 나무와 식생 등을 거의 찾을 수 없었다. 겉으로 봐서도 땅이 매우 메말라 보이고 농사짓기란 어려워 보였다. 설명을 들어 보니 그런 마을에 주로 인디오들이 살고 있으며 전기시설도 열악하고 물 공급도 어렵다고 한다. 몬테알반과 같은 큰 유적지의 주인공인 인디오들이 멕시코 안에서도 그렇게 가난하게 소외받으며 살고 있다는 게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었다.

사포테카 인은 죽음을 회생을 위한 하나의 형식으로 믿었다. 때문에 시신을 자기네 집 아래에 죽은 사람들의 미래 인생을 위한 소품과 함께 묻었다고 한다. 따라서 몬테알반의 많은 중요 발견물은 거주지 아래에서 발견되곤 한다. 서기 750년부터 서서히 국력이 쇠퇴하기 시작해 몬테알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점차 줄어들었다. 그러다 서기 1000년 무렵 결국 사포테카 문명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광장에는 열세 개나 되는 피라미드가 거대한 돌들로 이루어져 있다. 오늘날과 같은 과학기술이 발달하지도 않았을 그 시기에 그렇게 무거운 돌을 힘들게 옮긴 것을 생각해



오아하카 몬테알반의 전경

보면 신 중심 사회의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다.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게 과학적으로 계단을 쌓아올린 것을 보면 고대 사포테카 인은 매우 지혜롭지 않았을까. 이 지역을 발굴조사하면 고대의 많은 유물이 출토되고 더구나 그토록 지혜가 담긴 유물이 저 땅 밑으로 훨씬 더 많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클 것이다. 그런데도 주 정부가 가난하여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조사하지 못하고 있던 사실이 그저 안타까웠다.

무더운 몬테알반에서 일정을 마치고 소칼로 주변으로 되돌아왔다. 멕시코에서 쇼핑을 하려면 노비엠브레 시장을 방문하라는 소리를 듣고서 산크리스토발(San Cristóbal de las Casas)로 이동하기에 앞서 잠깐 노비엠브레 시장에 들렀다. 소칼로에서 세 블록 떨어진 노비엠브레 시장에서 원주민들이 직접 만들고 있는 민예품을 구경하고 구매했다. 솔직히 처음에는 시장 안이 어두컴컴하고 지저분하고 고약한 냄새도 나서 빨리 그곳을 빠져나가고 싶단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인디오 아줌마와 할머니들이 직접 그 자리에서 만들어 주는 공예품에 금세 빠져들고 말았다. 멕시코에서는 상인들이 관광객을 상대로 처음에는 언제나 높은 가격을 부르는 탓에 무조건 깎아서 가격을 흥정하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왔는데, 여기서만큼은 예외였다. 싼 값의 민예품을 수작업으로 연신 만드는데도 그렇게 탄생한 작품들은 하나같이 멋졌기 때문이다.

---

김수정 — 이화여자대학교 지리교육전공 (멕시코 프로젝트팀)